

교세집착... 교리와곡 관심밖

종교 지도자의 모습 이상의 교도(教徒)는 없다. 어떤 집단보다 종교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교도의 모습을 결정한다. 한국불교의 자화상, 그것은 결국 한국승가의 자화상 이외의 것일 수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 승려들의 일상의 관심 그 의식상태는 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반문 속에 함축시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한국인 4천만 모두가 100% 불교도가 되는 사태가 내 눈앞에 벌어졌다면 그 순간 한국 승가의 심경은 대체 어떠한가? 과연 그럴 때 오늘의 승가인은 진심으로 환호적일 것인가? 아, 나는 오늘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인가? 어쩌면 갑자기 구실과 핑계를 박탈당한 사람의 공허한 심경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교세(敎勢)같은 것이 인간 내면의 궁극적인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깊은 진실은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나의 허위의식이다. 나의 진실은 진실하고 참된 인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가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2차적인 문제다. 이게 내가 내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나의 진실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승가는 이 진실을 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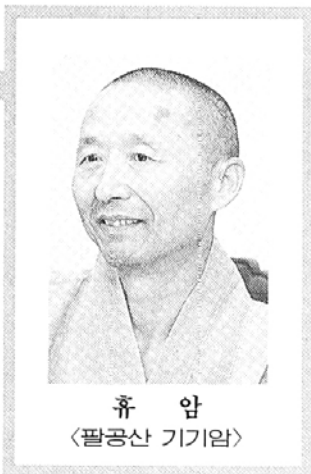
특별기고

한국승가의 자화상

바로 이런 이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가 종단 외치고 불교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속임수요 거짓인 것이다.

보라!
왜 불교를 사랑하는 데 이웃과 도반과 친구를 이익이나 이권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 왜 불교를 사랑한다면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보다 제 패거리 제 문중 제 사람에게 더 치중하는가? 여기에 자신의 진실이 허위임이 바로 폭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불교한다는 것이 어찌 바른 불교가 되겠는가?

나는 한국불교가 진실의 능력을 잃은지가 오래 됐다고 본다. 나는 적어도 20 수년 전 쫓겨 된 초창기 갈망중으로서 오고 가는 행각의 길 어귀에서



유 암
(팔공산 기거암)

이 적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지금의 열기는 그것이 참여이고 비기독교적이지만 어떤 무당도 의도도 다 진리인 의식이다. 그래서 비구도 비구도 불교인은 지금 우리 불교 하면서 푹푹푹 튀고 있지 않나? 이런 불교가 어떻게 내일의 주인이 될까?

한국불교는 지금 참여 지상주의 운 영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덧 한국승가에 현실참여의 구호가 모든 비수행의 발호의 모양이 되고 있음을 본다.

나는 가끔 한국불교의 현실정를 생각할 때면 극장에서 우루루 물러 나오는 관객들을 상상하게 된다. 극장에서 어느 영화가 관객을 2천만명을 동원했다고 어머머미한 흥행의 성공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왜 불교를 사랑하는데

이웃과 도반과 친구를

이익이나 이권보다 사랑하지 않나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보다 제 패거리에 치중하는가

마음은 청정하는데 왜 중생인지요

문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데 어쩌서 부처와 중생으로 벌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문영·경기 화성군 봉담면)

답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해서만 청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구정물, 고름물, 눈물, 핏물 등이 모두 한데 합쳐 돌아가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내 어찌 자성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정함을 알기 위해 여러분께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곳에서 들고 나는 그 청정함을 모르겠기에 청정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을 알지 못하지요. 자연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 공생·공용·공식·공체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대로 청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바탕은 어떤 더러운 데도 물들지 않아서 본래로 맑아 있습니다. 거울에 때가 끼었을 뿐 거울 바탕은 오염되지 않았듯이 본바탕의 성품도 맑고 청정합니다. 중생의 생멸심이야 탐진치에 물들고 죄업에 찌들어 있었지만 자성을 주인공은 본래로 물들

컬어서 주인공이라 하는데 불성이래도 좋고 참나래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만사는 주인공 거시기 해나가기 거기에다 믿고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체험하여 담담하게 주장자가 있을 때 비로소 나뭇의 도리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고 모든 것을 내은 곳에 놓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한마음 될 수 있나요

문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송인영·부산 남구 우암동)

답 부처님 생명과 이 스님 생명과 덕의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생각하니가 없애입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일체가 나아나는데 없기에 티끌 하나도 버릴 게 없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다 자비라 하는 것은 다 버려서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으니 버린 것도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 뜻이 참으로 감사한 줄 아셔야지요. 부처님 오신날은 날마다 오신 날이지만 말입니다.

지 상 상 담

길 잃은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지 않아서 청정합니다. 본래 그러하니 그걸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틀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만 닦아내면 본래의 모습인 부처인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관해야 합니다

문 스님께서는 일체를 말하고 관하라 하시는데 시는데 일체는 무엇이든 무엇을 관하라 하시는지요? (최진선·광주 남구 양림동)

답 일체를 관하라 할 때의 일체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참나로 돌아 가며 상대에 따라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있기에 상대가 있고 우주도 있으며 그 상대와 우주가 같이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체가 곧 화두라는 것이지요. 따로 화두를 들고 따로 화두를 받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내가 있고 나로 인해 모든 게 벌어졌고 눈부시게 참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공부재료인 것이지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그러기에 고정되지 않은 일체를 관하라 한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닦치는대로 놓고 안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비롯되어 어떻게 예까지 온전해 왔으며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참나참나에 화하여 같이 돌아가는 근본은 무엇일까 그 점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오묘함을 우선 믿고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근본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걸 일

그러면 우리가 지수화장을 먹고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함을 모를 것이니 공력이 하나도 없게 되지요. 현실에서 잘살든 못살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고등불교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따로 있고 너 나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있는 중생 생각하는 중생,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들 원하는대로 보살로 화해 응해주셨기에 32응신으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구해야지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발견하고 부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중생들 마음 속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요. 부처도 중생이 있기에 그 모두를 버릴 게 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두로 공부해도 괜찮습니까

문 '이 뭐고' 화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두참선이야말로 전통적인 선공부라고 생각합니다만 스님 생각은 다르신듯 합니다. (이종호·서울 성북구 정릉4동)

답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방법은 도중에 생긴 방법이지 부처님 재세시에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사람들이 이에게 너무 많아서 화두참선이 잘 먹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부 가 더딜 수 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생활하는 중에 들고다니는 일체를 말하고 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윤리의식 붕괴' '가치관 부재' '지성 빈곤' 승가 병폐

"우리는 진실을 찾다 불교를 만나야 한다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구제요 세상구제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불교 한국승가가 이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구제함으로 세상을 구제함을 알아야 한다.

교세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사회를 구제할 수 없다. 자기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불교를 먼저 사랑해선 안된다. 그건 거짓이다. 우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한다. 그 진실을 찾다가 불교를 만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진실을 찾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불교의 '진실'을 캐야 할 것이다. 그는 필경 불교를 자신의 엄격한 비판의 칼날을 통해 수용하고 그렇게 수용된 불교를 자신의 책임 자신의 진실로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는 그 불교를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자기이며 자신의 진실 자신의 생명 양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승가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즉 윤리적 긴장감의 붕괴, 가치관의 부재, 지성의 빈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승가의 현실이라고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다. 그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며 개선은 커녕 어떤 항목은 그 증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듣건데 해방 후 불교가 자기 발전에 대한 자각과 열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지금인데도 한국불교는 지금 원대한 불교적 이상이 없지 않은가? 애써 실현해야 할 가치도 증진된 정신도 없지 않은가?

있는 것은 교세에 대한 관심 뿐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모든 가치는 교세요, 종단이고 집단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승이 발호할 토양만 마련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모든 성토대회가 불교사랑 종단사랑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도 진실한 불교적 삼 불교적 양심 불교적 진실을 살려서 빠져진 현실을 보지 못했다. 이런 자기 모순과 이중성 양면성, 이것이 한국불교의 지금의 자화상이라고 본다.

오늘날 절대 다수 99% 대부분의 불교승려들의 의식은 기독교인보다 무당이 그대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인은 가치라는 말은 낯선 외국어다. 그래서 자신의 진리가 어떻게 왜곡돼 나타났든 크게 상관이 없다. 과거의 호국불교도 또 정화불교도 그 이름 밑에서는 뉘를 하든 다 호국이고 정화였다.

제작년의 4월 사태 때도 개혁이란 이름 밑에서는 어떤 아수라관도 역시 다 정의로 옹인됐었고 자기들에 이의가 절면 부처도 반개혁자고 자기들에 지지를 하면 부도덕한 전적(前積)의 소지자도 개혁세력이었다. 실지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긴 부도덕한 무리들

영화관에서 무수히 물러 나오는 관객 들인들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극장의 세과시 수입과시 이상의 큰 의미는 아니다. 거기엔 어떤 공명된 정신도 이상도 온몸이 시리도록 살지 않으면 아니 될 어떤 양심도 아무 것도 없다. 잡다한 화제 거리를 속에는 그저 재미라는 하나가 연결고리일 뿐이다.

한국불교의 오늘의 정진은 자신의 피해의식에 대한 반사적 생존의식이 기본이며 교세확장 의식이 그 표현이며 불교진리가 어떻게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중요한 관사가 아닌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불교의 근본은 존재의 구제다. 그러나 존재의 구제를 위해서는 불교가 역사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실 역사를 위해서는 불교가 자신의 존재의 구제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이 상반된 모순에 대해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한국불교의 자화상인 것이다.

한국불교가 가지 무방항인 것은 이 갈등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은 이 갈등과 긴장의 끝이 어느 정도 깊이나 여하에 따라 내일의 불교적 역사실현의 깊이와 높이와 운명 결정될 것이다.

삼화사 약사전 신축 및 천불조성 모연문



三和寺 鐵佛

약사불(藥師佛)이라 하였는데 신라 효성왕 3년(739)에 봉안된 것이다. 일진왜란에 절(寺)이 다 타버렸으나, 이 철불을 안치하여 놓은 약사전(藥師殿)안은 타지 않았으며 이조 현종 경자년에 중대사 지리에 옮겨 놓았다가 영조 무진년에 삼화사에 안치하였다. 순조 23년(1823. 9. 8.)도 화재가 있었으나 이때에도 역시 약사전(藥師殿)안은 타지 않았다. 그후 도독이 철불을 철거하여 술밭에 버리고 鐵佛의 손을 옮겨 달아 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고 종이 떨어진 손을 붙여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鐵佛은 제자리가 있었다 한다. 일제시대에 일본 관헌이 손을 잘라 동구밖 이로리(泥老里) 석탑(石塔)안에 간직하여 두었는데 그 후일은 분명치 않다.

삼화사 약사전 신축 및 천불조성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 무릉계곡에 위치하여 신라 시대 선덕여왕11년(AD·642) 자장왕사께서 창건하여 「흑연대」라 하였고, 그후 범일국사가 재건하였으며 임진왜란때 불타버리고 약사전만 남았었는데 현종과 순조때에 중건하였으며, 고종43년(1906년)에 의병의 거점이 되자 일본수비대가 불태워버린 것을 증건하였으며 최근 1977년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채석 관계로 이곳 중대사 에터로 옮겨 세웠습니다.

원력이 있는 곳에 보살이 있고 보살이 상주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불국정토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워 신라 효성왕3년(739년)에 봉안된 철불(도문화재자료 제112호)을 재현하여 조성 봉안하고, 천불 및 약사전 신축을 발원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약사전 신축기공식

- ▶ 일시 : 2540年 5월 19일(음 4월 3일) 11시
- ▶ 장소 : 두타산 삼화사
- ▶ 증명 : 비룡 큰스님
인허 큰스님
- ▶ 범어 : 현해 큰스님
 - 천 불 - 일불:3십만원
 - 규 모 - 목재 30평
 - 공사액 - 3억원

* 접수처 :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 176번지
· 전화 : 0394-34-7661~2, 7546
· 팩스 : 0394-34-7663

두 타 산 삼 화 사
주 지 이 원 행(遠行) 합 장